

제14회 아마추어 연극제 포천에서 개최

6월12일부터 16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제14회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가 아마추어 연극인들에 대한 작품 활동 기회부여와 지역 연극의 상호교류를 통한 경기연극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오는 6월12일부터 16일까지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연극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아마추어연극인들의 발표기회를 확대는 물론 관객에서 순수한 아마추어배우들의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하는 이번 행사에는 연극협회 정회원이나 기존 방송이나 영화에 출연했

던 배우들의 참가를 불허하여 공정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공연장의 부재로 인해 공연으로부터 소외되어온 지역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이번 연극제의 의미가 있다.

이번 연극제는 포천시와 한국예총 경기도연맹회가 주최하고 연극협회 경기도지회가 주관하며 포천시의회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해 마련한다. (공연문의: 포천예총 031-531-8181)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연극제 공연일정표>

일자	시간	지역	극단명	작 품 명	대표자	연출	작가
6/12 (토)	14:00~14:30	남양주	천마산	어느 고3수험생의 일기	이용호	유창수	유창수
	14:50~15:20	성 남					
	15:40~16:10	과 천	너울네	모르느적	신혜옥	오연실	
	16:30~17:00	의정부	회룡곡회	행복한 성인장	전영호	이선희	김현태
	17:20~17:50	관 주	밀목				
6/13 (일)	18:10~18:40	고 양	행주치마	마흔즈음	유은숙	S드라마	
	19:30~		리셉션				
	14:00~14:30	포 천	마흔	강도의 꿈	이장희	성준기	
	14:50~15:20	군 포	수리산				
	15:40~16:10	용 인		꿈을지키는 바보들			
6/14 (월)	16:30~17:00	부 천	열무	보고싶습니다	최정필	최정필	정세혁
	14:00~14:30	안 성	서라벌	아버지	민경호	김효정	김효정
	14:50~15:20	양 주	문화당	신 년선스	김정식	단고진	
	15:40~16:10	오 산	연극사랑	결혼	박병철	서승규	이강백
	16:30~17:00	수 원		작가를 찾는 6인의 등장인물	허 혁	황재연	
6/15 (화)	14:00~14:30	가 평	청공극단	우상의눈물	최순희	최순희	전상국
	14:50~15:20	구 리	어울림	허주곳	한철수		
	15:40~16:10	안 산	꽃빛	엘리베이터 엑시던트	김한규	김한규	
	16:30~17:00	안 양	소리	투신	임해경	임해경	음석중
	17:20~17:50	화 성	화성연극회	제암리 만세	한은희	정명욱	
6/16 (수)	14:00~14:30	화 성	화성연극회	제암리 만세	한은희	정명욱	
	14:50~15:20	양 경	풀	스키+여자 그리고 여자	민병순	민병순	민병순
	15:40~16:10	이 천	서해예술단	소리극 서희	성수석	성수석	성수석
	16:30~17:00	시 흥	시흥	더 덴티스트	오차진	양승환	
	17:20~17:50	광 명	해오름	페막식공연			
18:00~19:00			페막 및 시상식				

경기도립무용단 <우리춤 향연> 공연

포천시 반월아트홀이 주최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과 경기도립무용단이 주관해 마련하는 우리춤 향연이 오는 6월5일 토요일 오후3시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 무대에서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태평무▶사물놀이▶부채춤▶사랑가▶장고춤▶입춤▶농악무 등의 프로그램을 무대에서 선보인다.

공연문의 및 예약은 포천반월아트홀(☎530-8938~40/http://www.bwart.net)이나 인터파크(☎1544-1555/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이희용의 연극이야기(94)

변화하는 연극의 기본요소

흔히 교과서적인 연극의 '3요소'는 '극본(대본), 배우, 관객'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현대적 연극의 요소는 위의 세 가지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것은 도둑(스텝), 현장(공연장 또는 장소)이다. 약간의 생소하지만 연극이란 함은 대본이나 연기, 공연 등 객체가 아닌 공동체란 점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연극의 교과서적인 면에서 극본은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 통상의 관점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본이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단 그 대본에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예전에 대본은 말 그대로 대사의 '본'이었다. '본'을 보고 배우나 연출이 생각하고 그 결과를 극에 올렸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본의 형식이 많이 변화되었다. 모태를 따지면 표현주의극과 부조리극이 그러하다. 요즘은 짧은(?)연극의 대본이 마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라 할 수 있다.

좀 다르게 말하면 대본이 살

아있다 할 수 있다. 영화처럼 자신의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통상적인 대본의 좋은 점은 '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할 수 있었는데 이전 그 '본'이 없고 막연한 틀만 존재한다.

사진을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에는 사진틀과 현상중인 사진이 있었다. 예를 들어 80년대에 는 그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연습을 할 수 없었다. 자유롭다는 건 배우가 자신이 생각하는 배역의 특징을 합부로 역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연출도 마찬가지로 제작자나 기획자, 투자자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000년대의 연극은 예전의 연습과는 다른 분위기에서 연습을 하게 되었다. 정해진 틀이 없으니 연출자, 기획자, 배우 등 그 공연에 관련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수많은 회의의를

걸쳐 민주적인 연습으로 극이 완성된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열려스러운 단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의 교훈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도 현대극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연출이나, 배우, 공연 관계자중 어느 하나가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면 그 공연은 흥행을 떠나 성공하는 공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스텝하면 도우미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도 그런 것이 같은 연극계에 있어도 스텝 출신이 단장이 나 극단의 중요직책을 맡는 것은 거의 드물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며 스텝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최근에는 스텝출신을 더욱 알아주는 시대가 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연극계 사람에게는 과거의 고정관념이 잔존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변화가 될 것 같다. 그러나 미국 브로드웨이의 공연오디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대감독이라고 한다.

무대감독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공연 중 진행,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등 스텝들을 관리하는 직책이다. 연출은 공연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회장 본지 지문위원

전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극과 배우, 스텝들을 이끌지만 무대감독은 연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공연이 시작되면 연출의 권한이상의 힘을 가지게 된다. 전에는 연출이 무대감독도 했다.

그만큼 작품이나 공연이 객관적으로 변모할 위험이 많았다. 하지만 무대감독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공연이 주관적이고 현장의 맛이 살게 된다. 그러나 창작 열심히 준비하여 극을 올려도 공연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공연이 아닌 자축연이 되고 만다. 관객도 연극에서 같이 호흡하고 흐름을 느껴야 된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공연장의 다양화와 관객 층의 확대는 관객을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존재적 요소를 한층 귀하게 만들어 더욱 많은 심적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

연출가 '윤우영'



△ 연출가 윤우영

·사진)가 영국 유학후에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에 부임한 것은 지난 2001년도이다.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윤 교수에게 산 속에 묻혀있는 캠퍼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 반갑지만은 않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학과가 개설돼 그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10년의

극단 실험극장에서 80년대 초연출, 90년대 상임연출가로서 한국정통연극계의 계보를 형성해왔던 윤우영 교수(42·사진)가 영국 유학후에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에 부임한 것은 지난 2001년도이다. 후진양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했던 윤 교수에게 산 속에 묻혀있는 캠퍼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 반갑지만은 않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옮길 생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의 학과가 개설돼 그 형태를 갖추기까지는 10년의

는 소액다건주의 지원체계를 다액소건주의로 전환하여 제대로 된 작품을 무대에 선보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윤 교수는 중앙대학교를 나와 영국 브리스톨(Bristol)대학교 대학원 연극학과를 졸업했다. 극단 실험극장에서 활동해온 윤 교수는 지난 97년 ITI세계총회 및 세계연극대 의전통역실장을 맡았고 국제극예술협회(ITI, UNESCO)한국본부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다. 현재는 대진대학교 연극영화학부 학부장 겸 대진대학교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 주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연출 작품은 ▶1988년 무서운 부모들(장곡도/작)▶1989년 우리음내(손문 외일더/작)▶1996년 마로윳츠 햄릿 (마로윳츠/작)▶1997년 노인과 도배장이(이주영/작)▶1998년 나는 흥도

간결한 대사, 신체언어, 인형오브제 사용 작품제작

■ 지방에서 제작한 작품이 중앙무대에서 살아날 수 있는 시스템구축 필요

세월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난 98년에 개설된 연극영화학부의 시설과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나름대로 역할을 다짐했다. 학생들에게 정통연극과 실험연극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커리큘럼 구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교수가 추구하는 연출은 배우들의 대사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간결한 대사와 신체언어, 인형적인 오브제를 사용하여 상징성을 강조하는데 있다. 정통연극을 바탕으로 한 실험연극을 창작해 내는 작업이다. 이론적 틀을 구성하는 작업도 추진중이다.

최근 대학로연극이 해체위주로 흐르고 있다고 해서 너도나도 해체위주의 작품을 연출하는 것보다 윤 교수는 한국연극계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연극형태의 체계를 정리하고 이론적 틀을 만들어서 하나의 실험연극의 성공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연극의 활성화를 통해 중앙연극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영국이나 유럽의 지방도시에서 새로운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 중앙도시에서 있는 기획자들이 지방연극을 보기 위해 몰려든다. 이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 작품을 구입하여 중앙무대에 선보인다. 이런 시스템이 오랜 역사를 통해 진행돼 왔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같은 시스템을 국내에서도 도입하여 실천해 내고자 한다.

대진대학교 교육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윤 교수는 연극영화학부를 연기학, 뮤지컬연기학, 무대미술학 등으로 나눠 모집하기 위해 모집단위 변경신청을 한 상태다. 보다 세부적인 전공구분을 통해 학생들을 실제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함이다.

윤 교수는 예술대학원 공연영상학과를 특성화하여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정통연극에 맞는 학생들에게는 정통연극을 실시하고 실험연극에 맞는 학생들에게는 실험연극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현재 국가의 연극지원정책에 대해서 윤 교수

로 간다(김영학/작)▶1998년 신의 아그네스(존 필미어/작)▶1998년 원룡(이난영/작)▶1998년 디지털! 왜지들?-Interactive theatre-(양영찬/작)▶1999년 오봉산 불지르다(홍창수/작)▶오봉산 불지르다 초창영광공연▶1999년 영상도시(정의신/작)▶1999년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우연한 죽음(다리오 포/작)▶1999년 조선제왕신위(차성우/작)▶2000년 배꼽(김윤미/작)▶2000년 뮤지컬 렌트(Jonathan Larson/작사,작곡)▶2001년 뮤지컬 렌트 재공연(Jonathan Larson/작사·작곡)▶2001년 칼맨(김태수/작)▶2001년 치마(노경식/작)▶2002년 두여자(유상욱/작)▶2002년 두여자 재공연(유상욱/작)▶2003년 생일파티(해롤드 핀터/작)▶2003년 무용 불의제단(이미숙/안무)▶2003년 오페라 이순신 러시아 공연(김택환, 백기영/작, A. 블라디슬라비/작곡)▶2003년 통복어(안정희/작)의 오페라, 뮤지컬, 무용 등 다수 연출한 경력이 있다.

수상경력 ▶평론가 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 3 (1996): 마로윳츠 햄릿▶제33회 백상에 술대상 신인 연출상 수상▶세계연극제 공로 포상(1997, 문체부장관상)▶제24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및 연출상 수상(조선제왕신위)등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 윤우영 교수가 제24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및 연출상을 수상한 '조선제왕신위' 작품에서 열연하고 있다.

스포츠와 예술이 함께 한 생활스포츠! '인댄스 아카데미' 에서!!!



라틴룸바·차차차·자이브·사교춤
지루박·도롯도·부르스

